



류현우

강옥순

김대섭

강경남

진정한 국내 골프 최강 가린다

KPGA 광주은행 오픈 내일부터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서 열려

국내 시드권자 총출동

한국 프로골프(KPGA) 투어 본격 개막을 알리는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이 23일부터 26일까지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파72·7042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KPGA 투어 4번째 대회이나 국내 시드권자가 출전하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시즌 개막전으로 불만하다.

앞서 열린 유럽골프투어 벨란타인 챔피언십과 월드 아시아 투어 대회를 겸한 GS칼텍스 매경 오픈·SK텔레콤 오픈은 국내 선수들의 참가인원을 제한했다.

토종 선수들의 희망을 가리는 시즌 첫 대회인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관심이 집

중된다. 이 대회 총상금은 5억원, 우승상금은 1억원이다.

매경 오픈에서 정상을 밟아 국내 무대에서 3년 7개월 만에 우승의 감각을 누린 류현우(32)와 지난주 SK텔레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베데링 강우순(47·타이틀리스트)이 신·구 쌍 대결을 뜨겁게 뽐낼 전망이다.

매경 오픈에서 우승 상금 2억원을 챙긴 류현우는 상금 부문 2위(2억900만원), 대상 포인트 순위 2위(1000점)를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대회에서 시즌 2승째를 올리면 두 부문에서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

프로 통산 18승을 거머쥔 강우순은 SK텔레콤 오픈에서 농어의 삶을 선사하며 토종의 자존심을 살렸다. 4리운드 마지막 날 짧은 안개 탓에 3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면서 아쉽게 한 타차 준우승에 머문 강

우순은 이번 대회에서 축배를 들고 그 아쉬움을 털어낼 작정이다. 강우순은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 상금 순위와 대상 포인트 순위에서 각각 5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같은 코스에서 진행된 '해피니스 광주은행 KPGA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상희(21·호반건설)를 필두로 김대섭(32)·강경남(30·이상우리투자증권), 박상현(30·메리츠증권그룹)이 출격해 파워 넘치는 샷을 선보인다.

이에 맞서 박도규(43·테일러레이미드), 최호성(40) 등 노련한 선수들은 풍부한 경험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해피니스 골프장은 소나무 60그루를 주로 심어 코스난이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선수들의 정확한 샷 구사능력이 우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문지윤 소년체전 롤러 2관왕

(여수여문초)

전남도, 사전경기서 금 4·은 3·동 5개 수확...종합 4위 목표

전남도가 18~20일 대구 만촌 롤러경기장에서 벌어진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롤러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4, 은메달 3, 동메달 5개를 수확했다.

문지윤(여수여문초 6)은 여초 3000mP와 1000m에서 2관왕에 등극했다.

대회 첫날 여중부 EP 1만m에서 은메달을 딴 이수진(광양제철중 3)은 둘째날 E1만

5000m에서 27분02초868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이수진은 3000m 계주에서도 석다수·임소리·최정미 등과 호흡을 맞추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밖에도 석다수(여수 안산중 3)이 여중부 300mTR와 10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중 E1만5000m의 김선엽을 비롯

해 남중 EP 1만m의 양용주(이상 광양제철중 3), 여중 EP 1만m의 김수현(여수 안산중 2)과 여초·남중 3000m 계주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5, 은메달 17, 동메달 40개를 획득해 종합 4위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제42회 전국소년체전은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대구에서 개최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제42회 전국 소년체전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한 전남도 롤러 선수단.

"전남럭비 발전·경기력 강화 힘쓰겠다"

조용기 전남 럭비협회장



"전남럭비 발전과 경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럭비인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전남도 럭비협회 조용기(55·사진·디에스엠 대표이사) 회장은 "현재 중학부 팀이 진도중 한곳에 불과, 선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 중학부 팀을 창단해 선수 육성 구도를 체계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조 신임회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도 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난제가 해소되면 순천광고와 세한대 럭비부 등의 경기력도 자연스레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열악한 운동환경 개선과 우수선수 발굴 지원을 위해 경제적인 빚包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출신인 조 회장은 고교 2학년때까지 복싱 대표로 활약했고, 울산배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양궁팀 창단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 김란숙 등 선수 4명

광주시가 직장운동 경기부(실업팀) 장애인 탁구팀에 이어 장애인 양궁팀을 창단한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장애인 양궁팀 창단식을 갖는다.

초대 코치로는 이재원(28·광주시 장애인 양궁협회 코치)을 선임했다. 선수는 김란숙(46·2012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명구(45·은메달리스트), 김용옥(42·2012 런던 패럴림픽 국가대표), 김홍규(46·2010 광주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등 4명이다.

민선 5기 10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스포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대장애인체육회 주최의 '2013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광주 양궁팀 창단 계획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원(연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양궁팀 창단은 장애인 양궁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여건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3. 5. 16.

판사장 정환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피고인 죄송명

위 피고인은 증거위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